



제목	히타이트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중앙 M&B
발행일	2002. 12. 12.
저자	Birgit Brandau Hartmut Schickert 장혜경 옮김
출판도시	서울
페이지수	352
ISBN 또는 ISSN	978-8983758644

내용 요약

기원전 1700년대에서 1200년 사이 히타이트는 현재의 중앙 아나톨리아에서 대 제국을 이루며 세력을 떨치던 국가였다. 히타이트 민족은 고대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에서 문자와 법, 역사 기술, 행정문서 작성, 문학작품 번역 등을 배워 발전시켰다. 또한 고대 이집트와의 문물교역으로 다양한 문화 산물을 습득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통로로 축적된 지식은 히타이트 민족을 통하여 고대 그리스로 전파되었다. 역사적으로 히타이트 왕들은 소아시아 주변의 작은 도성국가들을 장악하고 마침내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려 고대 근동의 정치 판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던 인물들이다. 히타이트의 왕들과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주고받던 서신에서 그들의 외교활동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카데시(Kadesh) 전투에서 벌어진 대전은 양쪽에서 모두 승리하였다는 비화와 부조를 남기기도 했다.

히타이트 왕궁에서 일어난 왕위 찬탈의 음모와 계략, 암살 등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이 남긴 서신과 행정기록을 통하여 읽을 수 있다. 또한 이 책은 히타이트 사람들의 요리법이나 말 훈련 기술, 이집트 파라오와 히타이트 공주 사이의 혼인 성립을 위한 서신 왕래 등 다양한 종류의 히타이트 문헌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고대인들의 기록뿐 아니라 고고학적 발굴의 결과 등을 이용하여 아직 문헌자료에서 발견되지 않은 이야기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저자들의 상상력이 더해져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